

예술마음 11월의 새로운 책



한국문학과 불교문화

한국사회는 불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다. 한국 근대문학의 전통에서 불교문화의 실체는 서구의 물질적 가치와 자본의 힘에 맞서는 믿음의 활력으로 유효된 느낌이 짙다. 이 책에서는 작가나 작품 속에서 다루는 불교사상과 결부된 심미적 성취를 거론하고 있다.
유임하 지음 / 도서출판 역락 발행



21세기의 동양철학

동양학 및 동양철학 관련 전공 학자들이 60개의 키워드를 통해 21세기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동양철학을 살펴보고 어떻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동양철학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동철 · 최진석 · 신정근 엮음 / 율유문화사 발행



서법과 회화—중국 예술의 최고 형식

수천 년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른 중국 전통의 서법과 회화에 대해 그 근원과 철학사상 · 매력 등을 비교 · 계통적으로 다룬 책이다. 중국과 서양 예술의 자연관, 시 · 공간관의 차이와 창작 방법의 차이 등을 소개하고 특히 서화예술의 감상법을 일러준다.
동병중 지음 / 김연주 엮음 / 도서출판 미술문화 발행



빈센트가 사랑한 밀레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삶의 모델이나 스승을 두고, 그들의 삶을 배워 나가면서 인생의 길을 열어간다. 빈센트는 밀레를 자신의 삶과 예술을 이끌어주는 인도자이자 조언자,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에 걸쳐 밀레의 작품을 끊임없이 모사했다.
박홍규 지음 / (주)아트북스 발행



카라바조, 이중성의 살인미학

16세기 르네상스 미침표를 찍고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연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카라바조. 혼돈과 폭력이 난무하던 16세기 말, 속된 것 안에서 성스러운 것을 찾아내고 진정한 성스러운 의미를 묻고, 미술사가로서가 아닌 신학자의 시각에서 카라바조를 바라보고 있다.
김상근 지음 / 평단문화사 발행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1

1999년 초판에 이은 개정판. 김명국의 <달마상>, 안견의 <몽유도원도>, 문두서의 <진단타령도>, 김정희의 <세한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씨름>과 <무동> 등 12편의 명화가 간직한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 그림들이 왜 좋은지, 왜 의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오주석 지음 / 솔출판사 발행



유쾌한 클래식 여행 1·2

카바레티스트로 활동했던 저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클래식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비판 의식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클래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에서 브리튼까지, 34명의 작곡가의 생몰연대에 따라 50곡을 소개한다.
콘라트 바이키르헤르 지음 / 전훈진 옮김 / 이룸 퍼넬



퀴즈로 배우는 클래식 음악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상식을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구성하고 음악가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실어 다양한 방식으로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안동립 지음 / 현암사 발행



평전 제니스 조플린

대중의 관심과 갈채를 받으면서도 속명적으로 외톨이여야 했던 그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목격자가 쓴 그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한글, 그리고 제니스 조플린뿐만 아니라 1960년대를 풍미했던 록과 블루스의 전설적인 스타들도 만날 수 있다.
마이라 프리드만 지음 / 황우진 옮김 / 이룸 발행



나의 사랑 씨네마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인추> 등 통산 109편의 영화를 만든 6.70년대 한국영화의 역사라 말할 수 있는 김수용 감독. 그가 평생 동안 꼼꼼히 기록한 자신의 메모를 근거로 펼쳐놓은 육성의 이야기들은 개인사적 인 측면에서부터 작품적 측면, 영화산업적 측면, 그리고 문화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김수용 지음 / 씨네21 발행



최병학의 화술 오디세이

성우겸 텔런트로 40년간 현장에서 일한 저자가 전하는 화술학. 발성법, 낭독법, 대화법, 유머화술, 설명 설득력 높이기, 우리말 바로 알기 등 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최병학 지음 / 도서출판 아침기획 발행



한국의 명수필 2

1993년에 이은 한국의 명수필 두 번째 이야기. 황동규, 정호승, 안도현, 김훈, 장영희, 법정, 손광성, 맹난자, 목성균 등 다양한 필자들이 전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법정 등 지음 / 손광성 등 엮음 / 율유문화사 발행



삼국지를 보다

동아시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역사 판타지물인 삼국지를 받아들이는 한 중, 일 삼국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 웅장한 스토리와 장대한 드라마를 각기 자국민의 느낌과 스타일로 받아들여 재창조함을 한 자리에서 모아놓고 비교하면서 삼국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김상엽 편저 / 루비박스 발행



이연자의 우리차, 우리꽃차

사시칠 즐기 좋은 차를 열두 달로 나눠 칠마디 구하기 쉽고 건강에 좋은 꽃차와 약차를 소개하고, 열두 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차를 추가, 총 40가지의 차를 소개하고 있다. 각 차의 유래를 비롯해 효능, 옛 선조들의 차 생활, 비르게 즐기는 법 등 여러 가지 정보로 가득하다.
이연자 지음 / 랜덤하우스 중앙 발행



소나무 친구들

우리들 마음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소나무를 이대로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15명의 화가들이 그리고 쓴 소나무 사랑과 고백을 담은 에세이다.
이호신 등 지음 / 도서출판 Notebook 발행



사요나라 BAR

중류를 셀 수 없는 카페밀집촌이나 다양한 사람이 담긴 소설, 가벼운 존재감을 술과 일과 사랑으로 잊어보려는 힘든 자택질, 일상의 체념과 우울에서 번주되는 패러독스와 건조한 유머들은 낮게 가리웠든 비애감 위에 경쾌한 양념을 뿌려준다.
수잔 바커 지음 / 은하랑 옮김 / 길산 발행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현재 한류의 현장에 몰입하고 있는 저자가 한류 열풍의 현주소를 해외 수출 현황,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짚어보고, 우리 방송 콘텐츠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복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발행



박찬욱의 몽타주, 박찬욱의 오마주

‘도대체 넌 누구냐?’ 15년 동안 자신을 가둔 자의 정체를 묻는 이 단도직입적 물음은 비단 영화 <올드보이> 오대수의 전유물은 아니다. 박찬욱 감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첫 산문집 <박찬욱의 몽타주>와 첫 평론집 <박찬욱의 오마주>는 박 감독의 정체를 궁극해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것이다.
박찬욱 지음 / 마음산책 발행



홍대앞으로 와

홍대문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인디밴드와 클럽문화, 그리고 자유, 해방, 비상구 등을 의미하게 된 홍대앞. 홍대문화를 실제로 느끼거나 행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홍대앞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규정하지 못하는 홍대문화의 힘을 느껴본다.
이동준 엮음 / 바이북스 발행



유럽 카페 산책

카페의 기원이 된 이스탄불 카페를 시작으로 파리, 베네치아, 로마, 런던, 빈, 베를린, 프라하, 부다페스트까지 유럽 주요 도시에 있는 명문 카페 순례기. 카페를 사랑한 예술가와 문인, 사상가 등의 면면과 함께 그들이 즐겨 찾던 카페 그리고 유럽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광주 지음 / 열대림 발행



늑대왕 로보

만화 시튼동맹기 제1권. 원작에서 보여준 대자연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감동적인 스토리에 민족적인 재미를 부여했다. 식망한 현대문명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어니스트 톰슨 시튼 지음 / 그림나무 발행



어화동동 내 사랑이야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순수하면서도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이야기 12편을 담았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 조상들의 따뜻한 고고도 넉넉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
박민호 글 / 이재순 그림 / 영림카디널 발행



검은 달의 비밀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에 쓰여진 동화로,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러시아 아동문학의 걸작.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학교에서 홀로 지내던 소년 알로사가 학교 미당에서 키우던 검은 달의 목숨을 구해 주면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이야기다.
안토니 뿔고렌스키 지음 / 최행규 옮김 / 한행주 그림 / 청개구리 발행



미술사와 시각문화 4

종합적 인문학으로서의 미술사학의 포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의 연구지로 2008년 제4호가 출간됐다. 미술사의 안과 밖, 역사 속의 시각문화 읽기,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1) 등이 실려 있다.
사회평론 발행

※이 지면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로 꾸며집니다.